

자색 천 장수 리디아

핵심 구절: “티아티라 성에서 온,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줏빛 옷감 장수 리디아라는 여인이 우리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14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11-15, 40

오늘의 교훈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실라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실리키아, 데르베, 루스드라를 거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들에서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5:40, 41; 사도행전 16:1, 4

이 시점까지 선교 사역이 큰 성과를 거두자,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 북쪽과 동쪽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이 계획을 방해했고, 결국 사도는 주님께서 이러한 시도를 막고 계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꿈 속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신을 부르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즉시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6-10)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관심사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 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는 성경 기록상 유럽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입니다. 바울과 동행자들은 성문 밖 강가에서 매 안식일마다 열리는 작은 종교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기도 모임이자 예배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12, 13

이 여성들 중에는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색 천 장수”라는 표현은 그녀가 염료 제조업에 종사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염료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염료 제조 기술을 아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디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리디아는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여 그 복음을 따르도록 이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와 그녀의 온 집안”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6:14, 15

복음을 받아들인 후, 리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의 집과 자원을 주님의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환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맞이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서 진리의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사도행전 16:15

리디아의 환대는 겸손과 올바른 영적 예의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영적인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억지로 끼어들거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진심으로 청했습니다. 이는 섬기려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신중한 태도를 모두 보여줍니다.

리디아의 본보기는 하나님께서 한 명의 헌신적인 개인을 훨씬 더 큰 신성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행하는 진심 어린 섬김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준비된 마음, 신실한 가정의 영향력,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가짐은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